



“신뢰할 수 있는 저널리즘을 선택하세요”

세계 뉴스의 날(9월 28일)을 맞아 전 세계 언론계가 저널리즘 가치 홍보에 나섰다. 세계 뉴스의 날은 사실 보도와 민주주의에 헌신하는 언론의 역할을 알리기 위해 세계신문협회(WAN-IFRA) 산하 세계편집인포럼과 캐나다저널리즘 재단이 2018년 제정했다.

세계신문협회는 저널리즘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고, 저널리즘 지지를 촉구하기 위해 2018년부터 세계 뉴스의 날 캠페인을 전 세계 언론계와 함께 추진했다. 올해로 8회째를 맞은 이번 캠페인은 9월 25일부터 10월 2일까지 진행된다. 주제는 “사실을 바로 알고 무엇이 중요한지 이해하세요. 신뢰할 수 있는 저널리즘을 선택하세요(Know the facts. Understand what matters. Choose Trusted Journalism)”이다.

세계신문협회는 캠페인을 위해 홍보 동영상과 온라인 및 지면 광고

9월 28일 ‘세계 뉴스의 날’ 맞아 전 세계 언론 홍보 캠페인



〈하단 광고〉, 유명인사의 기고, 소셜미디어 콘텐츠, 만평(사진) 등 다양한 형태의 캠페인 자료를 각국 언어로 제작해 배포했다.

캠페인 홍보 동영상은 AI 기술 발달로 인해 미디어가 직면한 위기와 공익 저널리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았다. 동영상은 “허위 정보는 매년 전 세계 경제에 3,100억에서 5,100억 달러의 손실을 입히고,

뉴스가 사라진 공백은 권위주의적 세력과 AI가 생성한 콘텐츠로 채워질 것”이라고 언급한 뒤 “저널리즘이 사라질 때, 그대가를 치르는 것은 뉴스룸만이 아니라 바로 당신”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언론은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며 정치적 부정을 밝혀낸다”며 “자유롭고, 굳건하며, 지속가능한 공익 미디어는 허위 정보가 지배하는 세상에 맞서는 가장 강력한 방패”라고 강조했다.

신문지면 광고는 “시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질문하고 취재하고 설명하고 진실을 위해 포기하지 않는 언론”의 역할을 역설했다.

동일한 메시지를 담은 온라인 배너 광고와 만평도 제작해 배포했다.

‘#세계 뉴스의 날 (#World NewsDay)’ ‘#신뢰할 수 있는 저널리즘을 선택하십시오 (#ChooseTrustedJournalism)’ ‘#당신의 알 권리 (#YourRightToKnow)’ 해시태그를 통해 소셜 미디어에도 메시지를 확산시켰다.

라이오넬 바버 전 파이낸셜 타임스 편집인, 스티그 외르스코우 세계신문협회 CEO, 마르셀로 레크 세계편집인포럼 회장, 필 체트윈드 AFP 글로벌 뉴스디렉터 등 유명 언론인들은 ‘신뢰할 수 있는 저널리즘’의

중요성에 대한 기고를 제공하고 각 언론사가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캠페인에는 한국신문협회를 포함해, 뉴욕타임스, 파이낸셜타임스, AFP 등 전 세계 100개 국가 이상의 언론사와 언론기관들이 동참했다. 한국신문협회는 홈페이지,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캠페인 메시지를 전파했다. 신문협회 회원사들도 지난 9월 28일부터 자사의 지면 등을 통해 캠페인 콘텐츠를 게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저널리즘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렸다.

세계 뉴스의 날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관련 콘텐츠는 공식 웹사이트(worldnewsday.org)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문홍보 만화영상 공모전’ 10월 10일 접수 마감

신문협회는 ‘신문홍보 만화·영상 공모전’ 접수를 오는 10일 마감한다. 이번 공모전은 신문의 사회적 기능과 저널리즘의 가치를 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마련됐으며 공모 주제는 △신문의 사회적 가치와 역할 △신문의 특징점 △신문과 관련된 에피소드 등이다.

신문홍보 만화 공모전은 초·중·고·대학생을 대상으로 1~4컷 분량의 디지털 작품 또는 손그림 작품을 접수받는다. 공모 출품 수 제한은 없으며, 이메일(webmaster@presskorea.or.kr)로 제출하면 된다.

신문홍보 영상 공모전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30초 이상~60초 이내(최대 300MB)의 세로형 작품을 한국신문협회 웹하드(www.

구분	신문홍보 만화 공모전	신문홍보 영상 공모전
대상	초·중·고·대학생	전 국민
분량	1~4컷	30초 이상~60초 이내(최대 300MB)
출품수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수상자	총 8명(부문별 대상 1명, 우수상 1명)	총 3명(대상 1명, 우수상 2명)
상금	총 600만원	총 400만원

webhard.co.kr)에 제출하면 된다. 공모 출품 수 제한은 없다.

공모전 대상 수상자는 상금(만화 4명 각 100만원·영상 1명 200만원)과 상패를, 우수상 수상자는 상금(만화 4명 각 50만원·영상 2명 각 100만원)과 상패를 각각 받는다. 수상작은 10월 말 발표하며 자세한 응모 방법은 한국신문협회 홈페이지(www.presskorea.or.kr)에서 확인하면 된다.

왜냐하면 #당신의 알 권리니까요

우리는 질문합니다.

이야기 해볼까요?
혹은 다시 연락해볼까요?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줄 수 있나요?
그게 사실이라는 걸 어떻게 아나요?
또 막다른 길인가요?
당신을 믿어도 될까요?
이 사실이 감춰지면 누가 이득을 보나요?
증명할 수 있나요?
저한테 말하지 않은 게 뭔가요?
보도에 인용해도 괜찮을까요?
이것을 아는 사람이 또 누가 있나요?

우리는 취재합니다.

알다가 못지 않아요.
그들이 다시 우리를 막으려 하고 있어요.
뭔가 잡히는 것 같아요.
관련 기록을 찾아봅시다.
타임라인을 만드세요.
첫 번째 목격자를 찾으세요.
그들이 말하는 것 이상의 무언가가 있어요.
누군가 뭔가를 숨기고 있어요.
이 문서들은 다른 사실을 보여줘요.
대중은 알 권리가 있어요.
이게 어디로 이어지는지 봅시다.

우리는 설명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법적 측면을 설명해 드릴게요.
다시 말씀드리죠.
누가, 무엇을, 어디서, 왜, 언제 했는지 분명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할 수 있게 배경부터 설명할게요.
결국 이 모든 게 의미하는 건 이것입니다.
맞아요!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확인해봅시다.
또 다른 취재원이 필요해요.
늦게까지 남을게요.
커피 한 잔 더 시켜요.
전화 한 통만 더 하세요.
직감을 믿으세요.
(진실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아직 충분하지 않아요.
기다릴게요.
제가 찾아갈게요.
막다른 길. 하지만 지금뿐이에요.
아직은 보도할 수 있어요.
언젠가는 교차 검증할 수 있을 거예요.
매년 변화가 있는지 확인할게요.
좋아요, 이게 빠져 있던 조각이네요.
찾았어요.
한 번 더 읽어보세요.
이것이 모든 것을 바꿀 수도 있어요.

사실을 바로 알고, 무엇이 중요한지 이해하세요. 신뢰할 수 있는 저널리즘을 선택하세요.

신문협회 하반기 발행인 세미나

10월 22~23일 원주에서 개최

신문협회는 오는 10월 22~23일 강원도 원주 오크밸리에서 하반기 발행인세미나를 개최한다.



주최
WAN-IFRA World Editors Forum

주최
The Canadian Journalism Foundation
La Fondation pour le journalisme canadien

주최
PROJECT KONTINUUM

후원
MacArthur Foundation

1,500만 건의 ‘역사의 초고’가 들려주는 미국 이야기

<The Story of America, Told in 15 Million First Drafts of History>



뉴욕타임스는 지난 9월 18일 창간 175주년을 맞아 A.G. 설즈버그 발행인 <사진>의 특별기고를 게재했다. 설즈버그 발행인은 기고에서 미국 역사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해온 언론의 역할을 회고하고, AI 기술 발달과 트럼프 정권의 언론 규제 등 현재 미디어가 처한 위기 상황과 신문의 미래 방향성을 밝혔다. 본보는 기고의 주요 내용을 요약해 실는다.

이번 금요일(9월 18일) 뉴욕타임스는 창간 175주년을 맞습니다. 1851년 9월 18일, 뉴욕시 맨해튼섬 나소 스트리트 다락방에서 촛불을 밝혀 만든 흑백 네 쪽짜리 신문이 NYT의 시작이었습니다. NYT는 신문의 역할이 진실을 추구하고, 사람들이 세상을 이해하도록 도우며, 권력자에게 책임을 묻는 데 있다고 믿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스스로 결정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일을 뜻합니다. 시민들을 대신해 정부와 기업 지도자들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는 일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랜 신조가 말하듯 “두려워하지도, 잘 보이려 하지도 않고 불편부당하게” 뉴스를 전한다는 원칙 아래 공정성, 정확성, 독립성을 확고히 지키며 모든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뜻합니다.

매일 책 한 권 분량의 기사 보도

NYT 창간175주년이 미국 건국 250주년이라는 더 큰 이정표와 함께 찾아온 것은 뜻 깊은 일입니다. 지령 6만 1,011호와 1,500만 건의 기사를 통해 NYT는 인구 2,400만 명의 신생국에서 3억 5,000만 명의 글로벌 강국으로 성장한 미국의 경이

뉴욕타임스 창간 175주년 기념 A.G. 설즈버그 발행인 특별기고문

로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우리의 지면은 신기술의 등장과 그에 따른 격변의 과정을 보여줍니다. 전쟁과 경제 불황, 비극의 순간들이 남긴 피해를 드러내는 동시에, 승리와 경제 호황, 그리고 더 강해져 온 나라의 ‘할 수 있다’는 회복력도 기록합니다.

이 기록을 모두 합치면 미국 역사의 ‘첫 번째 초고’가 됩니다. 매일 새로운 한 권이 더해집니다. 하루치 보도는 평균적으로 1,000쪽짜리 책 한 권을 채울 만큼 방대하고 폭넓습니다. 이 기록물의 주저자들은 세상을 목격하고 자신이 본 것을 전하기 위해 우리가 파견한 기자입니다. 이들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데 그치지 않고, 사실을 맥락 속에 배치하고 그것이 왜 중요한지를 설명합니다.

남북전쟁의 첫 포성이 섬터(Sumter) 요새에서 울려 퍼졌을 때도 취재진이 현장에 있었습니다. 당시 우리 특파원은 북군 스파이로 몰려 체포됐습니다. 1920년대 호황기에 월 가(街) 보도는 무모한 투기 위험을 경고해 막강한 금융가들의 반발을 샀습니다. 대공황이 터진 후 한 유력 금융가는 “당시 그 경고에 귀를 기울였다면 오늘날 우리 사회가 훨씬 나아졌을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기자들은 제2차 세계대전의 전장에도 직접 나섰습니다. NYT는 정부가 배급하던 귀한 용지를 보도에 우선 할애했고, 이 과정에서 광고 게재를 포기했습니다.

흑인 민권 운동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기자가 현장을 지켰습니다. 25년 전 이달, 쌍둥이 빌딩이 무너져 내릴 때 모두가 도망치는 와중에도 기자들은 불길에 치솟는 폐허 속

으로 달려갔습니다. 이후 20년 동안 취재진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 상주하며 전쟁의 상흔을 기록했고, 지금도 두 나라에서 취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언론은 “자유를 지키는 위대한 보루 가운데 하나”

저널리즘의 엄격한 기준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지만, 그 과정에서 크고 작은 오류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NYT는) 잘못이 발생할 때마다 독자들에게 과정을 투명하게 밝히고 더 나은 보도를 위해 개선을 거듭해 왔습니다.

한 국가의 ‘기록의 신문’이 된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위대하지만 불완전한 신문이 위대하지만 불완전한 나라의 역사를 흔들림 없이 기록하는 것입니다. 자유로운 탐구와 표현의 자유를 향한 미국의 확고한 의지가 없었다면 NYT도, 우리가 옹호해온 독립 언론 모델도 존속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언론이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면 민주주의라는 대담한 실험도 진작에 흔들렸을 것입니다. 자치가 작동하려면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접근해 올바른 판단을 내리고, 지도자가 공익에 반하는 행동을 할 때 이를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합니다. 헌법이 명시적으로 보호하는 유일한 직업이 언론인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건국의 지도자들이 믿었던 것처럼 언론은 “자유를 지키는 위대한 보루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날 미국 자유 언론의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오랫동안 독자적 보도를 지탱해 온 광고 기반 사

업모델이 붕괴되면서, 불과 20년 사이 미국에서는 신문사 약 3,500곳이 사라졌고 지역 언론 일자리의 대다수도 없어졌습니다. 막대한 비용을 들여 언론사가 생산한 저널리즘을 인공지능을 주도하는 거대 기술기업들이 전례 없는 규모로 무단 도용하고 재가공하면서 이러한 침체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정적으로 약화된 상황에서 언론은 지난 세기 동안 가장 직접적인 정치적 공격을 받으며 권리와 정당성을 위협받고 있고, 때로는 그 압력에 굴복하기도 합니다.

지난 175년 동안 뉴욕타임스는 거센 압박 속에서도 보도를 이어왔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기자가 납치되거나 체포되고 총격을 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법정으로 끌려가거나 항의의 대상이 되고 조사를 받거나 법정에 서기도 했습니다.

양당의 역대 대통령들은 언론을 압박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보도를 막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현대사에서 도널드 트럼프만큼 언론에 적대적인 대통령은 없습니다. 그는 기자를 ‘공공의 적’이라 부르고 사형에 처할 수 있는 반역죄로 몰아세웁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보도가 나오면 언론사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합니다. 행정부에 지시해 권력의 수단을 동원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기자들을 수사하고 소환하고 기소하게 합니다.

하지만 언론의 지속적인 중요성을 보여주듯, 트럼프 역시 전임자들과 마찬가지로 NYT를 읽습니다. 여전히 우리 보도에 의존하고, 우리의 질문을 받으며, 자신에게 유리할

때는 우리 기사를 인용합니다.

자유 언론 훼손되면 민주주의도 무너져

자유 언론에 대한 압박이 커지는 지금이야말로 오히려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정보, 맥락, 책임성에 의존하고 있음을 되새기기에 특히 시의적절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아는 데 기자들은 큰 역할을 합니다. 기자들은 이 나라 250년을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공직자들이 정직하게 행동하도록 견제해 왔습니다.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가 퇴행하는 작금의 상황은 자유 언론이 훼손되면 다른 자유도 곧 무너진다는 분명한 경고를 보냅니다.

미국 건국과 NYT 창간 기념일이 맞물리는 이 시점은 언론과 민주주의가 오랫동안 긴밀하게 연결돼 있음을 다시 일깨워 줍니다. 여기에는 연속성에 대한 암묵적인 약속도 담겨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수많은 역경을 겪었고,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길을 찾아낼 것입니다.

그러나 두 기념일은 ‘역사는 기록될 때 비로소 배움의 자산이 된다’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지금 우리가 맞닥뜨린 순간은 정말 전례가 없는 것일까? 지난번 비슷한 사건은 어떻게 전개됐을까? 무엇이 효과가 있었고 무엇이 그렇지 않았을까? 다음에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늘 그랬듯 우리가 함께 겪은 과거의 교훈과 함께 만들어갈 미래에 대한 희망은 뉴욕타임스의 지면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원문은 NYT 웹사이트 오피니언 섹션(www.nytimes.com/2026/09/18/opinion/nyt-175-anniversary-sulzberger.html)에서 볼 수 있다>

신문협회, ‘디지털 저널리즘’ 하반기 실무연수 실시

10월 20~22일 3개 세션으로

신문협회는 회원사 소속 기자 및 디지털 실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오는 20~22일 ‘디지털 저널리즘 역량 강화’ 2차 실무연수를 실시한다.

이번 연수는 지난 5월 실시한 상반기 연수 참가자들의 심화 과정 개설 요구에 따라 마련됐다. 연수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뉴스룸 실무 자동

화, 데이터 활용 및 검증, 숏폼 콘텐츠 제작 등 실무에 초점을 둔 심화 교육 중심으로 추진한다.

주요 세션은 AI 기반 뉴스룸 워크플로우 혁신과 글로벌 미디어의페이월 전략, 생성형 AI 기반 뉴스룸 자동화 실무, AI 툴을 활용한 숏폼 저널리즘 제작 등이다. 강사는

김경달 더 코어 대표, 도안구 테크수다 발행인·편집장, 김연지 AI 커뮤니케이터가 각각 맡는다.연수는 온라인(Zoom)으로 진행된다. 참가비는 신문사당 10만 원이며 참가 인원은 제한이 없다. 신청은 오는 12일까지 신문협회 사무국으로 하면 된다.

일시	세션	강사
<세션1> 10/20(화) 14:00~16:00	AI 기반 뉴스룸 워크플로우 혁신과 글로벌 미디어의페이월 전략	김경달 더 코어 대표
<세션2> 10/21(수) 14:00~16:00	생성형 AI 기반 뉴스룸 자동화 실무	도안구 테크수다 발행인·편집장
<세션3> 10/22(목) 14:00~16:00	AI 툴을 활용한 숏폼 저널리즘 제작	김연지 AI 커뮤니케이터

“사회적 영향 큰 기사는 인간의 검증 과정 거쳐야”

신문협회 산하 기조협의회의(회장 권동형 한국일보 전무이사)는 지난 9월 18일 흥천 소노캄 비발디파크에서 ‘AI시대 신문 콘텐츠 전략과 신뢰 확보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발제를 맡은 김위근 퍼블리시 최고연구책임자는 “언론사는 AI 환경에서 자사 콘텐츠가 원천처로 인

기조협, ‘AI시대 신문 콘텐츠 전략과 신뢰 확보 방안’ 세미나

식되고 발견될 수 있도록 자체 채널을 강화하고, 기사를 AI 친화적으로 구조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사뿐 아니라 취재 과정에서 확보한 인터뷰 원문, 음성, 영상, 이미지 등 다양한 자료를 ‘정보 자산’으로 축적해 재활용·재판매하



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최고연구책임자는 특히 “AI

활용이 확대될수록 인간의 검증과 책임은 더 중요해진다”며 “AI가

관여한 모든 과정을 일률적으로 공개할 필요는 없지만, 사회적 영향을 미치는 핵심 콘텐츠에 대해서는 인간이 반드시 검증해야 하며, 중요한 AI 활용에는 출처와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할 것”을 제안했다. 이날 기조협은 세미나에 앞서 임시총회를 열고 파이낸셜뉴스의 회원 가입을 승인했다.

“기사-광고 명확히 구분해 투명성 확보 필요”

신문협회 산하 광고협회의(회장 손용석 한국일보 상무)는 지난 9월 18일 호텔현대 바이 라한 목포(구 현대호텔)에서 ‘신문광고 신뢰도 제고와 개선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사진)를 개최했다.

발제를 맡은 현창국 한국신문윤리

광고협, ‘신문광고 신뢰도 제고와 개선 방안’ 세미나

위원회 심의실장은 “정부광고 매체 선정 시 광고 효과와 함께 매체 신뢰도가 핵심 기준으로 부상했다”며 신문광고의 신뢰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 심의실장은 특히



기사와 광고의 모호한 경계가 독자의 불신을 초래한다고 지적한 뒤, 구체적인 해법으로 ▲광고와 광고주를 명확히 밝힐 것 ▲바이라인으로 광고를 기사처럼 꾸미지 않을 것 ▲광고를

숨기는 대신 콘텐츠의 질을 높일 것 등 ‘투명한 기사형 광고 3원칙’을 제안했다.

아울러 “신문광고 활성화를 위해 기사형 광고 표준화, 공동광고 캠페인 등 신문업계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스룸, 데이터 저널리즘·AI 역량 갖춘 인력 우선 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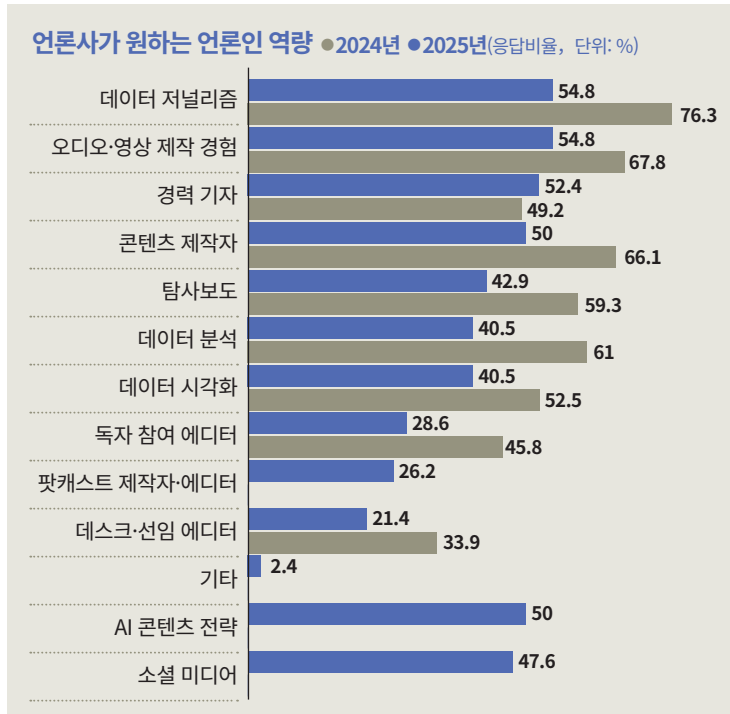
세계신문협회(WAN-IFRA)는 지난 9월 9일 ‘2025 아시아 뉴스룸 현황 보고서’의 주요 결과를 소개했다. 이 보고서는 2025년 9월부터 2026년 5월까지 대만, 싱가포르, 중국, 필리핀 등 아시아 12개 국가의 미디어 전문가 4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담고 있다. 이번 설문조사는 WAN-IFRA 아시아(WAN-IFRA Asia)와 싱가포르 난양공과대학교 ‘정보통합 및 인터넷 센터’가 공동으로 실시했다. 조사결과를 소개한다.

뉴스룸의 업무 범위 확대…인력은 제한적

설문조사 결과, 대부분의 언론사는 뉴스룸 업무 범위가 확대되는 데 비해 인력은 줄어드는 문제를 겪고 있었다. 응답자 42명 가운데 19명은 2024년 편집국 인원이 감소했다고 답했으며, 14명은 증가했다고 답했다. 9명은 변화가 없다고 답했다.

반면, 언론사가 요구하는 언론인의 역할과 역량 범위는 확대되고 있었다. 응답자의 54.8%는 채용 시 데이터 저널리즘 역량을 갖춘 인력을 우선적으로 선발하겠다고 답했다. 오디오·비주얼 콘텐츠 제작 경험을 갖춘 인력을 꼽

세계신문협회, ‘2025 아시아 뉴스룸 현황 보고서’ 발표



은 응답도 54.8%로 동일했다. 아울러 52.4%는 경력 있는 언론인을, 50%는 AI 콘텐츠 전략가를, 47.6%는 소셜미디어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필요로 한다고 응답했다.

독자의 디지털 플랫폼 이용 확대

종이신문 독자는 고연령층에 집중되는 반면, 디지털 독자는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층(26~34세)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었다.

종이신문 독자 수는 감소하는 가운데, 독자 증가는 언론사 웹사이트 외부의 플랫폼에서 두드러졌다. 응답자의 77.5%는 소셜미디어와 애플 뉴스(Apple News) 등 외부 플랫폼에서 뉴스 콘텐츠를 소비하는 독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답했다.

WAN은 “언론사는 외부 플랫폼을 통한 콘텐츠 도달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유입된 독자를 자사와의 직접적인 관계로 연결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AI 활용 확대…보조 업무 중심으로 활용

응답자의 약 3분의 2(66.6%)는 기사 제작 과정에서 생성형 AI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는 2024년(64.4%)보다 소폭 증가한 수치이다.

생성형 AI 활용 분야는 교정·문법 수정과 녹취가 각각 52.4%로 가장 높았으며, 사실관계 조사 50%, 번역 47.6%, 요약 42.9%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생성형 AI를 뉴스 콘텐츠 작성에 활용한다는 응답은 11.9%에 그쳤다. 뉴스룸은 AI의 효용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반면, 생성 결과물에는 낮은 신뢰를 보였다. 응답자의 77.5%는 AI가 언론인에게 도움이 된다고 답했으며, 75%는 일부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반면, 65%는 AI가 생성한 결과물의 품질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

했다.

크리에이터 협업 확대…뉴스룸 정채성 확립 과제

언론사는 디지털 크리에이터와의 협업을 점차 확대하고 있었다. 응답자의 38.5%는 외부 크리에이터·인플루언서, 핵심 오피니언 리더(KOL)와 이미 협업하고 있으며, 48.7%는 향후 협업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응답자의 약 60%는 크리에이터가 독자의 관심과 관점을 더 잘 파악한다고 평가했으나, 크리에이터 콘텐츠의 신뢰도는 낮다고 답한 응답자도 60%였다.

수익모델 압박 지속…뉴스룸 주요 과제로 부상

광고는 여전히 가장 큰 수익원으로, 응답자의 83.3%가 광고를 주요 수익원으로 꼽았다. 언론사 수익은 스폰서십과 종이신문 구독이 각각 54.8%, 페이지·멤버십은 42.9%로 답했다. 이 중 기부와 재단 보조금은 상대적으로 활용 비중이 낮았다.

향후 뉴스룸의 주요 과제로는 AI 활용과 적응, 수익원 확대 및 자금 조달, 종이신문과 디지털의 통합, 독자 행동 변화 분석, 인력 부족 대응, 독자 커뮤니티 구축 등이 꼽혔다.

“AI를 아는 미디어만이 생존할 것”

전자신문 창간 44주년 기념식

전자신문(발행인 강병준)은 지난 9월 22일 본사에서 창간 44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강병준 발행인은 기념사를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는 AI에 달려 있고 결국 AI를 아는 미디어만이 새 시대에 살아남는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서만 얻을 수 있는 사실, 사람을 만나야만 알 수 있는 맥락, 44년간 쌓인 산업 네트워크와 데이터가 우리의 자산”이라며 “AI는 그 자산을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빠르게, 더 여러 형태로 전달하는 도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룸의 AI 에이전트 활용 전략’ 워크숍

7일 디지털협·구글·온신협 공동 개최

신문협회 산하 디지털협의회(신한수 서울경제 전략기획실 부국장)는 구글 뉴스테크이니셔티브·온라인신문협회와 공동으로 오는 7일 서울글로벌센터빌딩 국제회의장에서 2026년 제1차 테크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뉴스룸과 AI 에이전트, 적용 전략과 실습’을 주제로, 참가 대상은 회원사 기자 및 언론사 기술·개발 담당자 등이다. △

1부 ‘AI 에이전트와 뉴스룸’ 세션은 김민기 KAIST 경영공학부 교수와 노영민 NC AI 글로벌사업실 거버넌스 인사이트팀장이 강의를 한다. △2부 ‘AI 에이전트 활용’ 세션은 오장민 성신여대 AI 융합학부 교수가 맡아 실습을 진행한다. △3부 ‘AI 에이전트 활용 사례’ 세션에서는 정현정 전자신문 차장, 최영준 구글 뉴스랩 티칭 펠로우, 유영훈 매일경제부장 등이 발표한다.

일간신문 및 뉴스통신 기사 197건, 광고 80건 주의 결정

신문윤리위 9월 심의 결과

신문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는 지난 9월 9일 제1,011차 회의를 열고 신문협회 회원사의 기사 197건과 광고 80건에 대해 신문윤리강령 등 위반으로 각각 ‘주의’ 결정을 내렸다<표>. 심의결정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윤리위 홈페이지(www.ikpe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9월 기사 및 광고 심의 현황

구분	건수	
	기사	광고
일간신문 및 통신	주의	197
	경고	0
온라인 신문	주의	80
	경고	0
온라인 신문	주의	200
	경고	0
온라인 신문	주의	150
	경고	0

회원사 동정

경상일보, ‘2026 왕생로 빛거리 축제’

경상일보(발행인 엄주호)는 오는 3~4일 이틀간 울산 남구 왕생로 및 문화공원 일원에서 ‘2026 왕생로 빛거리 축제’를 개최한다. 그동안 태화강 둔지에서 개최하던 빛거리 축제를 올해 왕생로 일원으로 옮겨, 빛과 거리예술, 시민체험, 지역상권이 함께하는 새로운 거리 축제로 선보인다. 이번 행사에서는 △빛 콘텐츠 △거리극·버스킹 △로봇화가 △파노라마 드로잉 △매직쇼 △컬러링 체험 △플리마켓 등을 만나볼 수 있다.

국제신문, ‘부산 관광 글로벌 비전 토론회’

국제신문(발행인 황문성)은 오는 7일 하얏트 플레이스 부산 볼룸 I에서 ‘부산 관광 글로벌 비전 토론회’를 개최한다. ‘거쳐가는 곳에서 머무는 관광으로’를 주제로 한 이번 토론회는 부산 관광의 양적 성장을 넘어 질적 도약을 이루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전상훈 부산관광공사 해외마케팅 실장이 ‘외국인 400만 시대, 부산 관광의 나아갈 길’을 주제로 발표한다. 문의는 국제신문 미래전략실 051-500-5012·3.

대구일보, ‘2026 포항 돌고래 피지컬 민간 올림픽’

대구일보(발행인 이후혁)은 오는 17일 포항 영일대해수욕장에서 ‘2026 포항 돌고래 피지컬 민간 올림픽’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소도구를 이용한 스포츠 경기 △부대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점프

박스, 철봉 매달리기, 팔굽혀펴기 등 스포츠 경기의 남·여 그룹별 1, 2, 3위에게는 메달과 시상금을 수여하고 참가자 전원에게 기념품을 증정한다. 참가자는 15일까지 선착순으로 200명 모집한다.

동아일보, ‘2026 체어스 포럼’

동아일보(발행인 임채형)는 오는 7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2026 체어스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위코노미 시대: AI·안보·에너지가 만드는 새로운 질서’를 주제로, 급변하는 전쟁과 경제 시대에 전략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미래 성장 해법을 모색한다. △제이슨 쉐커 프레스티지 이코노믹스 회장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 △문정민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 △김지현 SK AI위원회 부사장 등이 연사로 참여한다.

매일경제, ‘제4회 만추문예(晩秋文藝)’ 공모

매일경제(발행인 장승준)는 교보문고와 함께 오는 15일까지 ‘제4회 만추문예(晩秋文藝)’ 작품을 공모한다. 만추문예는 ‘인생의 만추’를 지나는 예비 문인들을 위한 글쓰기 축제, 대상은 만 40세 이상 미등단 작가이다. 공모 부문은 △시 △소설이며 상금은 각각 300만 원, 500만 원이다. 분량은 시 3편 이상, 소설 70장 내외이다. 심사위원으로 △정호승 시인 △정과리 문학평론가 △최윤·조경란 소설가가 참여한다. 접수는 이메일 munhak@kyobobook.com.

세계일보, ‘2026 세계드론산업포럼’

세계일보(발행인 박정훈)는 오는 13일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2026 세계드론산업포럼’을 개최한다. 주제는 ‘드론 주권과 글로벌 시장을 향한 K드론의 새로운 도약’이다. 포럼에서는 AI·반도체·통신 기술이 융합되는 국가전략산업 속 자립형 드론 생태계 구축과 민군협력 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한다. 문의는 포럼 사무국 02-2000-1574-5.

조선일보, ‘제17회 민세상’ 수상자 공모

조선일보(발행인 홍준호)는 오는 23일까지 민세 안재홍 선생을 기리는 ‘제17회 민세상 후보’를 추천받는다. 민세상은 2010년 제정돼 사회통합과 한국학 연구에 공로가 큰 인사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시상 부문은 △사회 통합 부문(사회 갈등 해소와 통합에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 △학술 연구 부문(한국학 각 분야 진흥에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이며, 상금은 각각 2,000만 원이다. 문의는 031-665-3365.

신문협회보

발행인	박장희
편집인	정우현
제작	한국신문협회
발행처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 1302호
인쇄	삼아인쇄
창간일	1985년 4월 15일
등록번호	서울, 다50673
대표메일	webmaster@presskorea.or.kr

저널리즘 교육 안내

모두가 모두를 지키는 사회,

자살예방보도 교육에 참여하세요



주요내용 및 신청안내

- ✓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8항 ‘자살보도의 주의’ 위반 실제 심의 사례를 통한 올바른 자살보도 기준 이해
- ✓ 자살예방보도준칙 4.0의 주요 기준



대상 위원회 자율심의 서약언론사 데스크 및 기자



교육기간 2026년 10월 ~ 12월



수강방법 온라인 저널리즘 플랫폼 교육



신청방법 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교육플랫폼
바로가기

